

초등 5~6학년  
독후활동지 (교사용)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한 윤봉길

글 민병덕 | 그림 강화경 | 감수 이성섭

스폰북



##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

- 글: 민병덕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60쪽
- 교과 연계: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그림: 강화경
- 정가: 14,000원
- 대상: 초등 고학년
-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책 소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 공원, 윤봉길 의사는 일본 국왕의 축하연이 열리던 무대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목청껏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물통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로 기억하는 윤봉길 의사는 삼백여 편의 시를 남긴 문학가이자 농민들을 일깨운 계몽 운동가였을 뿐 아니라, 인류에 가득한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한 시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희생과 정의로움은 물론, 역사의 의미까지 되새겨 볼 수 있을 거예요.





# 독서 전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1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며 드는 생각
1	예) 주인공으로 보이는 인물이 윤봉길인 것 같다.
2	예) 주변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도망가는 느낌이 든다.
3	

2 표지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예) 일제 강점기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

.....

.....

.....



# 독서 중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3)

[24쪽]

“교장 선생님, 일본이 조선에 은혜를 베푼다면 왜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다면서 왜 수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일본인 교장은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바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51쪽]

“역시 그냥 뽑아오기만 했군요. 큰일이네요. 당신 아버님의 묘소는 물론이고 이 묘표의 주인들도 모두 묘소를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봉길의 말에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 ) 이/가 죄로다. 이것은 이 청년 한 사람만의 통곡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이 나라 국민의 통곡 소리다. 일본 침략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1 24쪽 대화를 읽고 일본인 교장이 어떤 마음인지 추측해 보세요.

답) 곱으론 조선인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게 들켜서 화가 났다.

2 밑줄 친 ‘큰일이네요.’로 미루어 볼 때 젊은이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답) 뽑으면 안 되는 묘지 팻말을 모조리 뽑았다. / 묘지 팻말은 뽑은 데 표시를 하지 않았다.

3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답) ②

- ① 욕심
- ② 무지
- ③ 유식
- ④ 열정





# 독서 중

• 윤봉길 의사의 행적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건들과 맞닿아 있어요. 역사적 사건의 이름과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3·1 운동

1923년, 조만식이 만든 단체를 중심으로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노력한 운동. 윤봉길도 부흥원을 설립해 동참했다.

상하이 의거

1932년 4월 29일,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 소속 단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열린 일제의 전승절 행사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 요인들을 암살한 사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31년 9월, 일제가 중국 땅인 만주를 지배하고자 자작극을 꾸며 일으킨 전쟁.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만주 사변

192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 운동.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의 싸움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윤봉길도 동참을 호소했다.

물산 장려 운동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 평화 시위였으나 일제가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이를 계기로 윤봉길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 다음은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쓴 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각오를 다지거나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할 때, 스스로 하는 말을 써 보세요. 없다면 표어처럼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표어를 만든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장부출가생불환 : 사나이가 한번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 집을 나서 스스로 세운 뜻을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윤봉길 의사의 각오가 엿보이는 문장이에요. 상하이로 떠나기 전 남긴 글입니다.

예) 충전기 콘센트도 다시 보자

만든 이유 : 전기를 아끼기 위해 콘센트 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만든 표어입니다.

.....  
.....  
.....  
.....





#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 윤봉길 의사는 삼백여 편이 넘는 시를 남겼어요.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한 윤봉길》에도 몇 편이 실려 있지요. 윤봉길 의사의 삶을 떠올리며 다음의 시를 읽고, 세상을 떠난 윤봉길 의사에게 답을 남겨 보세요. 시, 편지, 감상문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45쪽]

목계에 굵이굵이 흐르는 한줄기 시냇물  
수덕사 깊은 계곡에서 스스로 샘솟아  
내 몸의 더러운 때 깨끗이 씻어 버리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흐르고 또 흐르리

[92쪽]

나는 농부요, 너는 노동자다.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높지도 낮지도 아니하다. 나는 밭을 갈고 너는 쇠를 다룬다.  
우리들 세상이 잘되도록 쉬지 말고 일을 하자.  
앞으로 앞으로 더욱더욱 앞으로

[146쪽]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하략)

---

---

---

---

---

---

---

---

---

---